

[186] 이광보(李光輔)<李朝 ? ~ ? >

本貫은 德水, 光震의 아우이며 벼슬은 通政大夫로서 府使를 지냈다 <新定牙州誌>

[187] 홍서일(洪敘一)<李朝 ? ~ ? >

本貫은 南陽, 松谷의 玄孫이며 벼슬은 通政大夫로서 府使를 지냈다. <新定牙州誌>

[188] 이한범(李漢範)<李朝 ? ~ ? >

本貫은 德水, 李忠武公의 6世孫이며, 通政大夫로서 府使를 지냈다. <新定牙州誌>

[189] 이한태(李漢泰)<李朝 ? ~ ? >

本貫은 德水, 漢膺의 아우이며 벼슬은 都正을 지냈다. <新定牙州誌>

[190] 이득수(李得秀)<李朝 ? ~ ? >

本貫은 德水, 李忠武公의 7世孫이며 벼슬은 通政大夫로서 府使를 지냈다. <新定牙州誌>

[191] 이의빈(李義彬)<李朝 ? ~ ? >

本貫은 德水, 達水의 아들이며 벼슬은 通政大夫로서 郡守를 지냈다. <新定牙州誌>

[192] 이서빈(李書彬)<李朝 ? ~ ? >

本貫은 德水, 李忠武公의 8世孫이며 벼슬은 府使를 지냈다. <新定牙州誌>

[193] 변우림(卞守林)<李朝末期 ~ ? >

本貫은 草溪, 縣監 自浩의 孫子이다. 蔭仕로 縣監을 지냈다. <朝鮮 輿勝覽>

[194] 이한일(李漢一)<李朝 ? ~ ? >

本貫은 德水, 栗里 堯臣의 后裔이다. 文科에 及第하여 司諫 벼슬을 지냈다. <朝鮮 輿勝覽>

[195] 임헌회(任憲晦)<純祖11年(1811)~高宗13年(1876)>

李朝 高宗때의 文臣, 字는 明老, 號는 鼓山, 全齋, 希陽齋, 諡號는 文敬, 本貫은 川, 竹室 弘望의 后裔로서 醉菊 天模의 아들이다. 어려서 宋穉圭, 洪直弼의 門下에서 修學, 洪直弼로부터 學業을 傳授할 首弟子로 指目받자 科業을 폐하고 經籍에 묻혀 살다가 哲宗 8年(1858) 薦擧되어 持平, 祭酒, 贊善을 거쳐 大司憲에 이르렀다. 高宗 2年(1865) 萬東廟의 祭亨을 철폐하매 王에게 建議하여 끝내 復亨케 했다. 死後 내부대신에 追贈되었다. 著書로 鼓山集, 續鼓山集이 있다. <日省錄, 承政院日記, 政治日記, 鼓山家狀, 朝鮮 輿勝覽>

[196] 표연말(表沿末)<李朝 ? ~燕山君 4年(1498)>

李朝 燕山君때의 文臣, 字는 少遊, 號는 藍溪, 本貫은 新昌, 表宗 9年(1478) 新任官吏로부터 酒宴의 待接을 받았다가 罷職되었다. 成宗 13年(1482)에 復職되어 成宗(1484)에 工曹 佐郎이 되고 成宗 17年(1486) 掌隸院司議로서 文科重試(丙科)에 及第하여 掌令, 待讀官, 司諫등을 歷任했다. 燕山君 1年(1495) 應教로 春秋 編修官이 되어 「成宗實錄」의 編纂에 參與했고 이듬해 直提學으로 廢妃尹氏의 追崇을 反對했으며, 그 後 承旨, 大司諫을 지냈다. 昭陵(文宗妃 顯德王后陵) 追復에 關한 事實을 史草에 적은 것과 金宗直의 門人으로 그의 行狀을 美化해 썼다는 理由때문에 燕山君 4年(1498) 戊午史禍때 禍를 입어 慶源으로 귀향가던

途中 銀溪驛에 이르러 死亡했으며, 燕山君 10年(1504) 甲子士禍때 剖副棺斬屍되었다. 當代에 이름난 文章家로서 뒤에 伸 되고 咸陽의 龜川書院과 咸昌의 臨湖書院에 祭亨되었다. 著書에 [丁藍溪文集]이 있다. <成宗實錄, 燕山君日記>

[197] 정순봉(鄭順朋)<成宗15年(1484)~明宗3年(1548)>

李朝 中宗때의 文臣, 字는 耳齡, 號는 省霽, 本貫은 溫陽, 獻納 鐸의 아들로 溫陽人이다. 燕山君 10年(1504) 別試文科(丁科)에 及第, 趙光祖등 新進士類와 交遊했으나 清流에 받아들여지지 않아 中宗 14年(1519) 己卯士禍때 禍를 免하고 다만 登用만이 抑制되었다. 中宗 33年(1539)에 工曹參判이 되고 이어 兵曹參判, 漢城右尹을 歷任하고 中宗 36年(1542)에 戶曹判書에 昇進했다. 仁宗 2年(1545) 大司憲을 거쳐 知中樞府事가 되었을때 仁宗이 죽고 明宗이 卽位하자 小尹으로서 尹元衡, 李 등과 함께 尹任, 柳灌등 大尹을 除去하는데 積極活躍하여 乙巳士禍의 頭目이 되었다. 그 功으로 保翼功臣一等이 되고 石贊成兼知經筵事에 昇進, 溫陽府院君에 封해 졌으며 이 해 다시 右議政에 올랐다. 明宗 3年(1548) 柳灌으로 부터 빼앗은 奴婢중 主人의 怨 를 갚으려던 계집중 申伊에 의해 죽었다. 宣祖 3年(1570) 官爵이 追奪되었다. <中宗實錄, 宣祖實錄>

[198] 이석생(李碩生)<李朝 ? ~ ? >

李朝를 섬기어 左議政을 지낸 崑의 孫子로서 牙山人이다. 中宗朝에 靖國功臣으로 策錄되고 牙城君에 封해졌다. 벼슬은 工曹判書에 이르고 錄券이 있다. <朝鮮 輿勝覽>

[199] 맹위서(孟胃瑞)<光海君 14年(1622) ~ ? >

字는 休徵, 本貫은 新昌, 府使 世衡의 아들이다. 孝宗 5年(1654) 式年文科(乙科)에 及第하여 檢閱이 되고 顯宗 2年(1660) 待敎를 거쳐 奉敎, 正言등을 歷任하고 顯宗 5年(1664) 司藝가 되었다. 顯宗初에 掌令으로서 謝恩兼陳奉使의 書狀官이 되어 淸나라에 다녀왔고, 顯宗 11年(1670) 黃海道 觀察使를 거쳐 左副承旨, 兵曹參旨, 右承旨, 忠淸道觀察使등을 歷任했다. 肅宗 4年(1677)에 安東府使가 되어 善政을 베푼功으로 嘉善大夫에 오르고 特進官에 이르렀다. <孝宗實錄, 顯宗實錄, 肅宗實錄>

[200] 정희빈(鄭姬蕃)<明宗 ? ~ ? >

李朝宣祖때의 文臣, 字는 子翰, 號는 孤松, 本貫은 溫陽, 大司憲 裕의 아들로 溫陽人이다. 宣祖 3年(1570) 式年文科(乙科)에 及第, 忠州牧使에 左職中 善政을 베풀어 王으로 부터 表彰을 받았다. 壬辰倭亂때 掌令으로 義州에 王을 모시고 避難한 功으로 忠勤 敎節協策扈聖二等功臣이 되어 溫城君에 被封되고, 承旨에 昇進하였다. <宣祖實錄, 功臣錄>

[201] 강학년(姜鶴年)<宣祖18年(1585)~仁祖25年(1647)>

李朝中期의 文人, 字는 子久, 號는 復泉, 本貫은 晉州, 大司諫 籤의 아들이다. 光海君 1年(1609)에 生員試에 合格하여 生員이 되었으나 病으로 辭退, 光海末年에는 政治가 紊亂하고 아버지를 여의었으므로 龍門山에 隱居하여 農事를 지어 老母를 섬기고 글을 읽으며 살았다. 仁祖가 特別히 불러 燕岐縣監을 시켰으나 辭退 후에 新寧縣監을 지냈으며 이어 司禦, 可藝 司業兼持平을 歷任하고 掌令에 까지 올랐으나 當世의 弊端들을 심하게 諫하다가 恩津에 귀양갔고 다음해 容恕받아 돌아왔다. 書道에 能하였다. 孝宗 5年(1654)에 伸寃이 되고 德의 龍湖祠에 祭亨되었다. 墓所는 牙山郡 溫井面 葛山里에 있다. <仁祖實錄, 國朝人物考>

<姜鶴年上疏> 仁祖 12年(1634) 11月 16日에 掌令으로 있던 姜鶴年이 民心의 離散, 民力의 消盡, 賦斂의 苛酷, 國家貯蓄의 蕩盡, 盜賊의 跋扈, 紀綱의 紊亂, 邊境의 危險, 天災地變의 續出등을 憂慮하여 이에 대한 方途를 促求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事實은 오히려 작은 問題이고 特別히 憂慮되는 것은 反正이후 當初의 言約과는 달리 天意를 反逆하고 임금의 政事가 德을 잃고 崇禮를 지키지 않아 朝野에 失望을 준것이 크게 걱정된다고 하였다. 이 上疏는 너무 지나치다 하여 鶴年은 귀양을 갔다. <仁祖實錄>

[202] 홍만조(洪萬朝)<仁朝22年(1645)~英朝1年(1725)>

李朝 肅宗때의 文臣, 字는 宗之, 號는 晩退堂, 諡號는 貞翼, 本貫은 山, 大司憲履祥의 曾孫, 仁祖 22年(1645) 11月 18日 서울 長興에서 出生하였다. 上産에 올라 肅宗 4年(1678) 文科에 及第한 후 檢閱, 持平, 副修撰등을 거쳐 肅宗 16年(1690)에 忠淸道 觀察使, 肅宗 19年(1693)에 江華留守가 되었고 肅宗 22年(1696) 謝恩府使로 淸나라에 다녀온 후 都承旨, 大司諫, 漢城府判尹등을 지내고 刑曹判書와 右參贊에 이르렀다. 肅宗 44年(1781)에는 古齡으로 耆老所에 들어갔고 다시 判義禁府事左參贊, 判敦寧府使에 補職되어 英祖 1年(1725) 81才로 卒하니 領議政을 追贈하고 諡號를 내렸다. 爲人이 淸廉하고 勤勉하며 度量이 넓어 모나지 않고 圓滿하게 大局的인 面에서 政治를 했으며 朝廷에 나간지 48年동안 크고 작은 被動이 여러번 일어났으나 그의 반대편에서 감히 恨을 잡지 못하였다. 墓所는 牙山郡 排芳面 細橋里 上리에 있으며 이곳에 影幀을 모신 自隱影堂도 있다. <肅宗實錄, 景宗實錄, 星湖文集>

[203] 맹만택(孟萬澤)<顯宗1年(1660)~肅宗36年(1710)>

李朝 肅宗때의 文臣, 字는 施中, 本貫은 新昌, 名祖 思誠의 後孫, 漢城左尹 胃瑞의 아들이다. 顯宗이 明善公主의 駙馬로 定하고 婚姻式을 하려는데 萬澤이 母喪을 당하여 中止하고 解喪을 기다렸으나 公主가 天然痘로 卒하므로 新安尉까지 封하였다가 廢止되었다. 肅宗 24年(1698) 謁聖試에 及第한 후 內侍敎官, 司諫, 副承旨, 黃海監司, 水原府使, 大司諫등을 거쳐 忠淸監司로 있다가 病을 얻고 돌아와 죽었다. 그는 生來로 風標가 穎異皎然하기 玉樹아 같았고 內行이 淳備하고 居官에 律法으로서 하니 治聲이 있었고 聽捷善悟, 經傳으로부터 諸書에 이르기까지 旁通치 않음이 없었고 輿地에 精通하고 書道에 能하여 顏眞卿, 柳公權의 체에 뛰어났다. <顯宗實錄, 肅宗實錄, 陶谷集>

[204] 홍중징(洪重徵)<肅宗19年(1693)~英祖48年(1772)>

李朝 英祖때의 文臣, 初名은 重欽, 字는 錫餘, 號는 梧泉, 諡號는 良孝, 本貫은 山, 判敦寧府事 萬朝의 子로 肅宗 19年(1693) 12月 14日 漢城에서 出生하였다. 肅宗 37年(1711) 進士에 合格하고 肅宗 39年(1713) 增廣文科(甲科) 第3位로 及第, 벼슬은 掌令, 兵曹參判등을 거쳐 英祖 33年(1758) 承旨가 되었다. 그 後 漢城府右尹, 刑曹參判을 거쳐 英祖 39年(1763) 知中樞府事가 되었고 그 이듬해에 工曹判書에 이르렀다. 古齡으로 耆老所에 들어간 후 80才가 되어 崇錄에 올랐고 政仕奉朝賀에 除授되었다. 그는 文章에 能하였으며 晩年에는 周易을 깊이 研究하여 많은 著書를 남겼다. 著書로는 玩樂篇, 窺班錄, 經史證易, 左易參證, 史評, 詩文등이 있다. 墓所는 牙山郡 排芳面 細橋里 上리에 있다. <英朝實錄, 星湖文集>

[205] 정 염(鄭 )<中宗 1年(1506)~明宗 4年(1549)>

李朝 中宗·明宗때의 學者, 字는 士潔, 號는 北窓, 諡號는 章惠, 本貫은 溫陽, 順朋의 아들이다. 中宗 25年(1530) 司馬試에 及第, 音律에 밝고 玄琴에도 精通하여 掌樂院主簿로서 歌曲의 장단을 指導하는 한편 天文, 地理, 醫術에도 造詣가 깊어 觀象監, 惠民署敎授를 兼任했다. 뒤에 抱川縣監이 되었으나 身病으로 그만두고 楊州의 掛羅里, 廣州의 淸溪寺, 果川의 冠岳山등지에서 스스로 藥草를 求하여 靜養하다 죽었다. 儒, 道, 釋의 三敎에 能通하고 卜筮와 漢語에 밝았으며 文章, 山水畫에도 能했다. 特히 痼疾病을 많이 고쳤으며 燕에 使臣으로 갔다가 돌아온 후 여러 著書를 냈다. 著書로 北窓集, 東垣珍珠藝, 劉氏○訣, 北窓秘訣이 있다. 明宗때 提學에 追贈하고 諡號를 내렸다. <海東名臣錄>

[206] 정 석(鄭 )<中宗 27年(1533)~宣祖 36年(1603)>

李朝 宣祖때의 學者, 字는 君敬, 號는 古玉, 本貫은 溫陽, 順朋의 아들, 의 동생이다. 아버지 乙巳土禍의 元兇으로 官職이 削奪되었으므로 벼슬에 뜻을 두지 않다가 宣祖때 佐郎을 지냈다. 學問에 精進하였으며 술을 즐겨 酒仙이라고 일컬을 정도였다. 詩文이 높았고 글씨에 뛰어나 草書와 隸書를 잘 썼으며 醫藥에도 造詣가 깊어서 宣祖 29年(1596) 歷史的인 醫學書(東醫寶鑑)를 許浚의 指揮로 편찬할 때에 參與하였다. 그의 兄 과 함께 奇行異跡으로 이름이 높았다. <宣祖修正實錄, 燃藜室記術>

[207] 박지성(朴知誠)<宣祖6年(1573)~仁祖13年(1635)>

李朝 光海君때의 學者, 字는 仁之, 號는 潛治, 諡號는 文穆, 本貫은 咸陽, 應立의 아들이다. 德望이 높고 孝心이 깊었다. 1609年 王子師傅으로 있었으나 곧 亂任하였다. 光海君의 廢母是非로 朝野가 떠들석하매 湖西의 新昌에 移徙하여 門을 닫고 來容을 거절하고 讀書에 專念하였다. 仁祖 1年(1623) 司憲府持平, 영월 郡守등을 歷任하였다. 禮에 밝았으며 牙山에서 죽었다. 史曹判書를 追贈하고 諡號를 내렸다. ○湖 朴弼周가 行狀을 지어 牙山の 仁山書院에 配亨하였다. 著書로 周易乾坤卦說이 있다. <國朝人物考, 朝鮮 輿勝覽>